

제42호(2017. 10. 17.)

한·미 무역 불균형 “팩트체크”와 농업부문 대응방향

이현근 명수환 임채환 송우진



목 차
contents

1. 서론	1
2. 한·미 국제수지 현황	5
3. 한·미 산업별 상품교역과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10
4. 요약 및 시사점	23

감 수	이대섭 연구위원	061-820-2169	ldaeseob@krei.re.kr
내 용 문 의	송우진 연구위원	061-820-2328	gnos@krei.re.kr
자 료 문 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42호

한·미 무역 불균형 “팩트체크”와 농업부문 대응방향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7. 10.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약 Summary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FTA 재(개정)협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며, 현재 한·미 FTA 재협상 절차 시작에 합의
 -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의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2차례에 걸쳐 개최했으며, 제2차 특별회기를 종료하고 양국 대표는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
- 한·미 간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흑자를 기록하지만, 상대국에 대한 투자규모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큼. 한·미 양국의 무역특화는 대외 경쟁력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對미국 평균 투자액(금융계정)은 FTA 발효 전 31억 달러 부채에서 FTA 발효 후 181억 자산으로 변했으며, 對미국 경상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평균 162억 달러에서 발효 후 평균 335억 달러로 106.7% 증가함.
 - 우리나라의 對미국과 對세계(RoW) 경쟁력이 높은 산업군의 무역특화지수는 모두 하락했고, 미국은 對세계(RoW) 무역특화지수는 악화된 반면 對한국은 개선
- 농식품 분야 상품교역은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수입특화 구조이며, 축산(낙농 포함), 과일과 견과류 등의 상품수지 적자가 FTA 발효 전보다 악화
 -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농식품 품목군의 무역특화지수는 미국(0.97)보다 낮고 2011년 0.68에서 2016년 0.61로 하락함. 반대로 경쟁력이 낮은 품목군은 미국(-0.66)보다 낮은 수준으로 같은 기간 -0.96에서 -0.94로 소폭 상승
 - 쇠고기(지육 1.5억 달러, 정육 2억 달러), 신선치즈(0.1억 달러), 탈지분유(0.08억 달러), 오렌지(0.5억 달러), 포도(0.09억 달러), 자몽(0.06억 달러) 등의 상품수지 적자 증가
- 한·미 무역 불균형은 경상(상품)수지를 포함한 거시적인 국제수지를 통해서 볼 때 균형 있는 판단이 가능하며, 상품 분야 무역 불균형 해소는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
 -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즉시철폐는 기존 수입특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맺은 다른 FTA 체결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상품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목표는 협정관세율 및 철폐기간의 재조정보다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
- 우리나라는 농식품 수입특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국내 농업부문 산업구조와 시장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방향 설정 필요
 - 수입특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 경쟁력 제고, 국내 소비자 및 시장여건을 반영한 농업 및 농업정책의 틀 전환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01 | 서론

1.1. 한·미 간 무역 불균형 개요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으며, 현재 FTA 재협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과 선거 유세 등을 통해 한·미 FTA는 미국의 실업을 일으키는 협정으로 규정하는 등 부정적 견해 피력
 - 대통령 이외에 테리 밀러 헤리티지 재단 국제무역연구소장, 마이크 펜스 부통령, 월버 로스 상무 장관 등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 올해 들어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추진에 대한 행동 구체화
 - 3월 31일, 상무부·무역대표부에 16개 주요 무역적자국의 현황 및 구조 파악을 지시¹⁾
 - 4월 29일,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위반 및 남용 사례에 대해 정부 차원 검토 지시²⁾
 - 6월 30일, 한·미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공식 제기³⁾
 - 8월 7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무역수지 적자 개선과 공정한 관계를 위해 한·미 FTA 개정 필요성 재언급⁴⁾

〈표 1〉 미국의 한·미 FTA 무역 불균형 언급 주요 사례

날짜	배경	내용
2016.7.21.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	KORUS FTA=job killing deal
2016.8.3.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 버지니아 유세	KORUS FTA=job killing deal, disaster
2017.2.1.	테리 밀러 헤리티지 재단 국제무역연구소장 헤리티지재단-무역협회 공동개최 세미나 발언	partial improvement or update
2017.3.31.	백악관 지시사항(상무부·무역대표부)	주요 무역적자국 현황 및 구조 파악 지시
2017.4.18.	마이크 펜스 부통령 AMCHAM 연설	review, reform
2017.4.25.	월버 로스 상무장관 WSJ 인터뷰	reopen
2017.4.2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renegotiate, termination
2017.4.29.	백악관	기 체결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 사례 검토 지시
2017.6.3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미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공식 제기
2017.7.12.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
2017.8.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한·미 FTA 개정 필요성 재언급

자료: 이진면·김바우(2017).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i-KET 산업경제이슈』 제21호 재인용 후 저자 보완.

- 1) 백악관. 2017.03.31.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
- 2) 백악관. 2017.04.29.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 3) 동아일보. 2017.07.01.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공식 제기
- 4) 청와대. 2017.08.07. 한·미 정상통화 결과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향후 30일 이내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2017.7.12.)⁵⁾
 -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미 FTA 개정·수정 요구에 대하여 양국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으며⁶⁾,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더욱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힘.⁷⁾
 -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통해 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협정문 규정⁸⁾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함.
-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한다고 밝힌(2017.8.17.) 후 8월 22일 제1차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10월 4일에는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협상이 진행됨.
 - 1차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의 對한국 상품수지 적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이유로 FTA 개정 및 수정을 촉구했으며, 우리나라는 상품수지 적자의 원인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
 - 2차 협상 결과,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힘.⁹⁾

1.2. 무역 불균형이란?

□ 무역 불균형은 교역상대국 간 일방적인 대외무역 흑자 또는 적자구조가 심화되는 현상

-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은 무역 불균형, 금융 불균형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각국의 저축-투자 불일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브렌더·피사니 2009¹⁰⁾; 아글리에타·베레비 2009¹¹⁾; 전용복 2010¹²⁾; 한영빈 2013¹³⁾), 무역 불균형은 글로벌 불균형의 한 가지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글로벌 불균형은 경상수지 부문에서 미국의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반면 중국, 독일, 일본, 한국과 중동 산유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함(한영빈 2013).

5) 산업통상자원부, 2017.07.03, 미국 USTR,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 보도참고자료.

6)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1, 산업부, 미국 USTR 공동위 개최 요청에 답신(答信) 발송.

7) 청와대, 2017.08.07, 한·미 정상통화 결과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8) 양국이 별도로 협의하지 않는 한 요청받은 국가에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9) 한·미 FTA 개정협상 시작을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제반절차를 진행해야 함.

10) 브렌더·피사니, 『금융 세계화와 글로벌 불균형』, 서익진 역,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9.

11) 미셸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세계 자본주의의 무질서』, 서익진 외 3인 공역, 도서출판 길, 2009.

12) 전용복, “중국경제의 무역 불균형-위완화 평가절상의 문제-”, 『동북아경제연구』 Vol. 22(3): 173-197, 2010.

13) 한영빈,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조정: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의 대안과 문제점”, 『한국정치연구』 Vol. 24(2): 363-386, 2015.

- 예를 들어 미국의 對중국 상품수지 적자는 2010년 2,911억 달러에서 2016년 3,657억 달러로 25.6% 증가했으며, 對세계 상품수지 적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2.2%에서 49.6%로 확대됨.

□ 무역 불균형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다수의 수단이 존재

- 무역 불균형은 크게 ‘미국패권쇠퇴론’과 ‘구조적 통화권력’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이규철 2017¹⁴⁾), 조정의 수단으로 긴축과 환율조정이 널리 알려짐.
 -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2005년 7월 2.1% 평가절상 후 완만한 절상을 했을 뿐이며, 2008년 중반에 6.83위안으로 환율을 고정시킴.
- 미국패권쇠퇴론은 국가 능력의 물질적 기반은 경제력이고, 이는 다시 생산의 국제 경쟁력을 의미하는 데서 출발
 - 특정 국가 생산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무역적자가 지속된 결과 대외부채가 누적된다는 것은 그 국가의 경쟁력이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그에 기반한 전반적인 국력이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
- 구조적 통화권력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정책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 구조적 권력이 존재하는 영역 중의 하나가 국제 통화금융체제임.
 - 현재 국제 통화는 미국의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가치 하락 비용의 대부분을 수출입품의 가격 변화와 채무부담의 평가효과(valuation effect) 등을 통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전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

1.3. 한·미 무역 불균형 팩트체크 필요성 및 목적

□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구조적 원인은 크게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미국 내부의 문제로 귀결¹⁵⁾

-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내부적 원인은 1) 낮은 저축률, 2) 재정적자의 고착화, 3) 산업구조의 변화, 4)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등이며, 외부적 원인은 1) 신흥국의 과잉저축, 2)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3) 신흥국 통화의 저평가 등임.

14) 이규철, “미국의 구조적 통화권력과 미-중 무역불균형의 정치경제,” 『국제정치연구』 Vol. 20(1): 55-75, 2017.

15) 김정훈·이준원,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 『Trade Focus』 제35호, 한국무역협회, 2017.

-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근본적으로 미국 내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한·미 FTA 발효 전후 국제수지 각 항목의 추이를 통해 무역 불균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한·미 FTA 재협상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

- 무역 불균형은 경상수지로만 이해할 수 없어 보다 거시적인 관점(국제수지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의 실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관련된 연구나 자료가 부족한 상황임.¹⁶⁾
- 한·미 FTA 재협상이 농업부문에 미칠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농업부문 대응방향 모색이 긴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 무역 불균형 실태 파악과 산업 및 품목별 무역경쟁력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미 FTA 재협상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무역 불균형 실태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국제수지표를 통해 경상수지,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나누어 분석함.
- 상품교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분류인 MTI 코드, 산업 및 품목별 무역경쟁력지수는 UN에서 정한 표준국제무역분류인 SITC 코드를 이용해 분석함.

16)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구성되며,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IMF가 정한 국제수지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된 통계임.

02 | 한·미 국제수지 현황

2.1. 한·미 국제수지¹⁷⁾ 개요

□ 우리나라의 對미국 투자(금융계정)가 미국의 對한국 투자보다 더 크고,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흑자를 기록

- 우리나라의 對미국 투자액은 2007년 288억 달러에서 2016년 52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FTA 발효 전후 5년 평균¹⁸⁾ 투자액은 31억 달러 부채에서 181억 달러 자산으로 변화
- 對미국 경상수지 흑자는 2007년 165억 달러에서 2016년 311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FTA 발효 전후 5년 평균 경상수지 흑자액은 162억 달러에서 335억 달러로 106.7% 증가
- 對미국 자본수지는 2007년 2,850만 달러 지출에서 2016년 3,010만 달러 지출로 증가했지만, FTA 발효 전후 5년 평균 자본수지는 2,877만 달러에서 1,330만 달러로 감소

〈표 2〉 우리나라의 對미국 국제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수지	
											'07~'11	'12~'16
경상수지	16,496	16,920	15,167	13,680	19,773	19,038	36,227	40,986	33,032	31,148	16,194	33,469
자본수지	-29	-32	-26	9	-73	-30	2	-12	2	-30	-28.77	-13.30
금융계정	28,762	2,820	-4,188	-20,187	-7,996	5,876	11,881	25,022	17,509	52,503	-3,121	18,13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중 미국의 비중은 FTA 발효 전보다 현저히 감소했으며, 미국의 국제수지 중 우리나라의 비중은 FTA 발효 전후 모두 매우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액에서 미국의 비중은 FTA 발효 전 평균 97.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FTA 발효 이후 37.9%로 크게 감소함.
 - 2007년의 경우 對일본과 對EU 서비스수지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對세계 서비스수지 적자가 매우 컸고, 2008년의 경우 對일본과 對중동 상품수지 적자 심화로 對미국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100% 이상으로 나타남.

17)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으로 구분되며,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본원소득·이전소득수지, 자본수지는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 금융계정은 상대국 기업에 대한 직접·증권투자와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및 준비자산을 기록함.

18) 이하 모든 자료에서 평균값은 2007~2011년과 2012~2016년 양 기간 동안 각각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의미하며, 평균변화율은 이 평균값 사이의 변화율을 나타냄.

- 우리나라 금융계정에서 미국의 비중은 FTA 발효 전 평균 183.2%를 차지했으나 FTA 발효 이후 24.1%로 크게 감소함.
- 2007년의 경우 EU와 동남아의 국내 투자에 따른 부채가 우리나라의 對미국 투자에 따른 자산보다 커 1000%가 넘는 비중을 보였고, 2010년에는 對미국 부채가 다른 나라와의 부채 대비 월등히 높아 500%가 넘는 비중을 나타냄.
- 미국의 국제수지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경상수지 적자는 5% 미만이고 금융계정은 10% 미만에 불과함.
- 對한국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07~11년 평균 1.0%에서 2012~16년 평균 3.8%로 확대
- 對한국 금융계정 비중은 같은 기간 0%에서 6.5%로 확대(우리나라의 對미국 투자 확대)

〈표 3〉 전체 국제수지 대비 한국과 미국의 비중 변화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비중	
												'07~'11	'12~'16
한국의 對미	경상수지	139.9	530.4	45.1	47.4	106.0	37.5	44.6	48.6	31.2	31.6	97.8	37.9
	자본수지	-500.0	-121.2	37.1	-14.7	65.2	71.2	-7.4	137.1	-3.8	82.2	-33.0	49.9
	금융계정	1,215.9	5.7	10.1	534.0	-77.2	15.3	18.6	35.0	18.6	56.6	183.2	24.1
미국의 對한	경상수지	1.5	0.9	1.2	0.7	1.0	1.7	3.0	4.3	4.6	4.2	1.0	3.8
	자본수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금융계정	2.4	-4.2	4.0	-2.5	-0.1	4.1	3.7	5.8	9.6	12.6	-0.0	6.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미국경제분석국(B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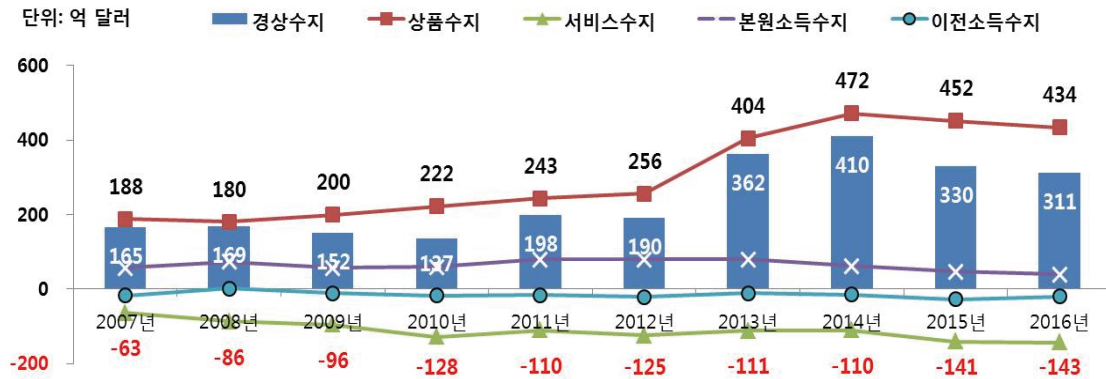
2.2. 한·미 경상수지 동향

□ FTA 발효 이후 확대된 우리나라의 對미국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상품수지¹⁹⁾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감소 추세

- 對미국 경상수지 흑자는 2007년 165억 달러에서 2014년 410억 달러로 148.5% 증가했으나, 2016년 311억 달러로 감소함.
- 對미국 경상수지 흑자에서 상품수지 흑자(FOB 기준)는 FTA 발효 전 평균 203억 달러에서 발효 후 평균 430억 달러로 111.6% 증가
- 對미국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7년 63억 달러에서 2016년 143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FTA 발효 전 평균 97억 달러에서 발효 후 평균 125억 달러로 29.1% 증가

19) 국제수지(경상수지)표상의 상품수지에서 수입과 수출은 FOB(본선인도조건)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되며,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기준 수입액과의 차액은 서비스수지(지급)에서 계상됨.

〈그림 1〉 우리나라의 對미국 경상수지 동향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對미국 서비스수지 적자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와 여행수지 적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적자가 FTA 발효 이후 크게 악화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적자는 FTA 발효 전 평균 31억 달러였으나, FTA 발효 이후 평균 53억 달러로 69.9% 증가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적자의 비중은 FTA 발효 전 32.0%에서 FTA 발효 후 42.1%로 확대
- 여행수지 적자는 FTA 발효 전 평균 41억 달러였으나, FTA 발효 이후 평균 48억 달러로 19.4% 증가
 - 여행수지 적자의 비중은 FTA 발효 전 41.8%에서 FTA 발효 후 38.6%로 소폭 감소

〈표 4〉 우리나라의 對미국 서비스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수지	
											'07~'11	'12~'16
소계	-6,315	-8,631	-9,555	-12,798	-10,971	-12,460	-11,096	-11,001	-14,087	-14,281	-9,719	-12,547
가공서비스	555	532	421	551	510	486	397	332	190	280	531	336
운송	757	-564	-647	-675	-1,437	-267	-181	-54	-633	-1,451	-629	-360
여행	-5,312	-4,165	-3,578	-3,890	-4,132	-4,590	-4,163	-4,619	-5,337	-5,725	-4,062	-4,848
보험서비스	-214	1	433	-519	11	-17	-40	39	-28	-47	-67	-28
지식재산권사용료	-2,581	-3,044	-3,301	-4,983	-2,992	-4,866	-5,590	-5,408	-5,885	-4,592	-3,113	-5,288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26	-101	-131	-18	-69	-74	19	132	-155	-360	-63	-70
기타사업서비스	-220	-1,861	-2,682	-2,940	-2,777	-2,750	-1,303	-1,232	-2,383	-2,599	-2,440	-2,095
정부서비스	817	667	761	476	547	669	646	474	307	338	658	486
기타서비스	-143	-96	-829	-799	-633	-1,051	-880	-665	-163	-124	-525	-56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3. 한·미 투자(금융계정) 동향

□ 우리나라의 對미국 투자규모(금융계정)²⁰⁾는 FTA 발효 전 자산 감소(부채 증가)에서 FTA 발효 이후 對미국 증권투자 자산의 증가로 전체 투자 자산이 증가

- 對미국 투자규모 총액은 FTA 발효 전 평균 31억 달러의 부채가 있었으나, FTA 발효 이후 평균 181억 달러 보유로 변화
 - 투자 유형별 2012~16년 평균 투자규모는 증권투자가 51.8%(94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기타 투자(29.4%, 53억 달러), 직접투자(20.8%, 38억 달러), 파생금융상품(10.9%, 20억 달러) 순²¹⁾
- FTA 발효 직전 3개년 동안 미국의 對한국 증권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의 對미국 증권투자보다 많아 평균 60억 달러의 부채를 기록했으나,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對미국 증권투자 증가로 94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함.
 - 우리나라의 對미국 증권투자 자산은 해마다 증가한 데 비해 부채는 감소
 - 對미국 증권투자 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은 FTA 발효 전 59.1%에서 FTA 발효 후 45.4%로 감소한 반면, 부채성증권의 비중은 같은 기간 40.9%에서 50.2%로 증가
 - 對미국 증권투자 부채에서 주식의 비중은 78.3%에 이르고, 부채성증권의 비중은 9.3%에 불과

〈표 5〉 우리나라의 對미국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07~'11	'12~'16
소계	28,762	2,820	-4,188	-20,187	-7,996	5,876	11,881	25,022	17,509	52,503	-3,121	18,137
직접투자	4,165	-462	1,289	2,683	7,372	1,671	-507	4,455	5,205	8,139	2,712	3,777
자산	3,786	5,246	3,551	4,303	9,775	4,920	3,479	7,136	6,224	9,001	4,445	6,093
부채	-378	5,708	2,262	1,620	2,403	3,249	3,986	2,681	1,019	863	2,095	2,317
증권투자	25,749	7,422	-14,352	-21,062	-11,067	-5,480	6,457	15,240	6,489	33,657	-5,999	9,395
자산	12,766	-10,165	568	1,275	602	3,939	10,264	19,759	15,311	33,925	815	15,111
부채	-12,983	-17,587	14,920	22,337	11,670	9,418	3,807	4,519	8,822	268	4,535	5,716
파생금융상품	896	3,068	-850	379	1,548	615	1,152	1,693	3,665	3,102	941	1,982
자산	-535	-11,181	-13,868	-8,651	-7,244	-5,397	-5,964	-7,652	-10,138	-8,856	-9,025	-7,491
부채	-1,432	-14,249	-13,018	-9,031	-8,792	-6,012	-7,116	-9,345	-13,803	-11,959	-10,280	-9,473
기타투자	-2,048	-7,208	9,725	-2,187	-5,849	9,070	4,779	3,634	2,150	7,605	-3,361	5,340
자산	1,604	1,379	-2,259	450	4,584	2,273	6,875	4,342	1,083	6,671	1,145	4,428
부채	3,652	8,588	-11,984	2,637	10,433	-6,797	2,096	707	-1,067	-935	4,959	-43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 금융계정의 부호 표기방식은 2016년 2월부터 '순유출입액 기준'에서 '자산·부채의 증감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자산은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현물출자분, 거주자의 해외부동산투자 등을 의미하고 부채는 그 반대를 의미함.

21)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는 직접투자관계(Foreign Direct Investment Relationship)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기업 간에 일어나는 거래,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주식, 부채성증권 거래,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그 가치가 금융상품, 실물상품, 지표 또는 신용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나타냄(한국은행 2016).

- 對미국 직접투자 규모는 FTA 발효 전 27억 달러에서 FTA 발효 후 38억 달러로 39.3% 증가했으며, 자산 증가규모가 부채 증가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對미국 직접투자 규모 중 자산은 FTA 발효 전 44억 달러에서 FTA 발효 후 61억 달러로 37.1% 증가했으나, 부채는 같은 기간 21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10.6% 증가에 그침.
- 對미국 파생금융상품 규모는 FTA 발효 전 9억 달러에서 FTA 발효 후 20억 달러로 110.6% 증가했으며, 부채 감소분이 자산 감소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對미국 파생금융상품 규모 중 자산은 FTA 발효 전 90억 달러 감소에서 FTA 발효 후 75억 달러 감소로 17.0% 감소했으나, 부채는 같은 기간 103억 달러 감소에서 95억 달러 감소로 7.9% 감소함.

03 | 한·미 산업별 상품교역²²⁾과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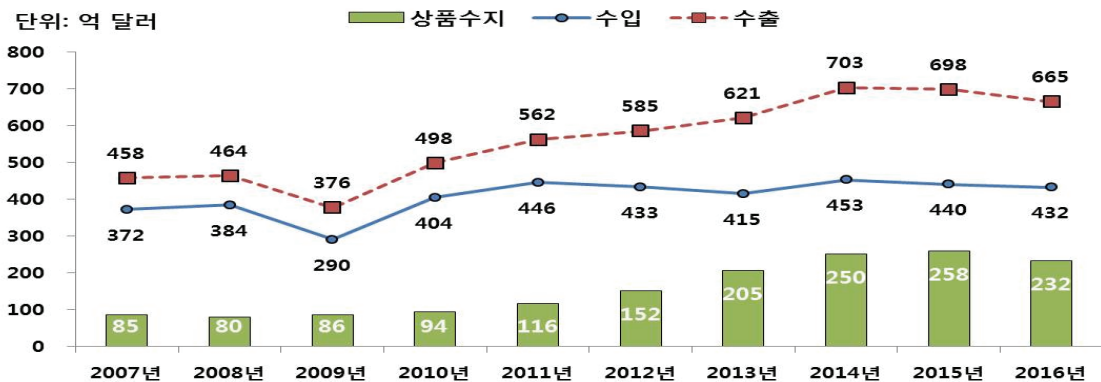
3.1. 한·미 산업별 상품교역 동향²³⁾

□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국 상품수지 흑자는 FTA 발효 이전 대비 158.9%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전체 상품수지 흑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

○ 對미국 상품수지(CIF 수입, FOB 수출) 흑자는 FTA 발효 이전 평균 89억 달러였으나, FTA 발효 이후 229억 달러로 크게 증가

- 對미국 수출액은 2009년 이후 연평균 8.5%의 속도로 증가했지만, 미국산 수입액은 2011년 이후 정체되어 5.8% 증가에 그침.

〈그림 2〉 對미국 전체 상품교역 동향



주: 수입액은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가격, 수출액은 FOB(본선인도조건)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우리나라 전체 상품수지 흑자에서 對미국 상품수지 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추세를 보임.

- 對미국 상품수지 흑자 비중(%), 한국은행 통계 기준): 57.2('07) → 46.3('10) → 36.0('16)

□ 농림수산업 및 화학공업 산업은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한 반면, 기계, 전자전기와 철강금속 산업은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

○ FTA 발효 후 농림수산업의 對미국 상품수지 적자는 FTA 발효 전 대비 14.8% 증가했으며, 화학공업 산업은 큰 변화 없이 평년 수준을 유지함.

22) 본 장의 상품무역 통계는 일반적인 통관통계를 기준으로 집계·작성하였으며,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국제수지표상의 경상수지(무역수지)와는 그 작성편제 및 개념상 차이가 날 수 있음.

23) 본 절의 평균값은 5개년 값에서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3개년 산술평균인 절단평균을 의미함.

- 농림수산 산업의 상품수지 적자는 FTA 발효 전 평균 51억 달러에서 발효 이후 평균 58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화학공업 산업의 상품수지 적자는 43억 달러 수준을 유지
- 對미국 상품수지 흑자를 나타낸 기계와 철강금속 산업의 흑자는 각각 226.8%와 17,627%의 큰 폭으로 확대된 반면 전자전기 산업은 7.8% 축소됨.
- 기계 산업의 상품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평균 56억 달러에서 발효 후 평균 183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철강금속 산업은 같은 기간 1,242만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증가
- 전자전기 산업은 같은 기간 94억 달러에서 86억 달러로 감소

〈표 6〉 산업(MTI 1단위)별 對미국 상품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수지	
											'07~'11	'12~'16
농림수산	-3,411	-6,103	-3,937	-5,226	-6,768	-5,641	-5,002	-6,879	-6,034	-5,846	-5,089	-5,841
광산	3,196	953	780	1,948	162	511	1,541	200	771	35	1,227	494
화학공업	-4,385	-3,894	-3,729	-4,647	-4,857	-4,791	-4,980	-4,065	-3,991	-4,146	-4,309	-4,33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535	585	613	1,006	1,373	1,563	1,268	1,489	1,667	1,917	735	1,573
섬유	1,481	1,244	881	854	930	1,052	1,058	1,066	1,026	990	1,018	1,045
생활용품	232	161	146	161	172	288	327	294	317	345	165	313
철강금속	-76	169	-500	-56	738	1,858	1,649	3,757	2,428	2,319	12	2,202
기계	5,267	6,619	4,871	4,685	10,702	14,964	16,351	20,354	21,472	18,063	5,585	18,256
전자전기	6,335	8,750	9,812	11,122	9,488	5,560	8,528	8,959	8,378	10,027	9,350	8,622
기타(잡제품)	-627	-473	-325	-434	-300	-180	-199	-173	-226	-458	-411	-201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농림수산업에서 곡류와 사료의 상품수지 적자는 개선된 반면, 서류, 과실류, 견과류, 가축 육류, 꿀 및 로열젤리와 낙농품 등의 상품수지 적자는 크게 확대

- 곡류의 상품수지 적자는 FTA 발효 전 8.1억 달러에서 FTA 발효 후 6.6억 달러로 18.5% 개선되었고, 사료는 같은 기간 15.8억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30.3% 개선됨.
- 곡물과 사료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친 미국의 이상고온과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 GMO 논란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상품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보임.
- 관세율 인하 영향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는 서류, 과실류, 견과류, 가축 육류, 꿀 및 로열젤리와 낙농품의 상품수지 적자는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각각 115.5%, 134.0%, 185.4%, 117.0%, 187.6%와 202.8% 악화됨.
- (서류)감자의 상품수지 적자는 FTA 발효 전 평균 5,361만 달러에서 FTA 발효 후 평균 1.2억 달러로 115.6% 증가
- (과실)체리(0.3억 달러 → 1.1)와 오렌지(1.1억 달러 → 1.9)의 상품수지 적자가 각각 253.5%와 69.9% 증가

- (견과류)호두(0.1억 달러 → 1.1)와 아몬드(0.1억 달러 → 1.8)의 상품수지 적자가 각각 116.9%와 247.9% 증가
- (가축 육류)쇠고기(3.0억 달러 → 7.2)와 돼지고기(2.3억 달러 → 4.0)의 상품수지 적자가 각각 137.7%와 76.0% 증가
- (낙농)로열젤리(1.6억 달러 → 4.5)와 치즈(0.1억 달러 → 2.0)의 상품수지 적자가 각각 186.5%와 259.7% 증가

〈표 7〉 농업부문 주요 부류별(MTI 4단위)별 對미국 상품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수지	
											'07~'11	'12~'16
농산물	-2,538	-4,975	-2,909	-3,927	-4,644	-3,841	-3,067	-4,444	-3,721	-3,381	-3,827	-3,648
곡류	-435	-1,249	-631	-778	-1,034	-868	-625	-747	-618	-528	-814	-664
서류	-39	-44	-49	-67	-78	-93	-108	-118	-130	-120	-54	-115
두류	-168	-286	-216	-358	-327	-312	-373	-382	-292	-296	-276	-327
과실류	-146	-151	-111	-200	-271	-370	-374	-386	-402	-426	-166	-388
견과류	-70	-84	-95	-132	-169	-234	-278	-343	-370	-268	-104	-296
사료	-1,184	-2,457	-1,284	-1,612	-1,831	-1,239	-421	-1,460	-1,013	-1,043	-1,576	-1,098
축산물	-633	-849	-831	-1,106	-1,943	-1,649	-1,744	-2,233	-2,177	-2,365	-22	-38
가축육류	-317	-447	-486	-605	-1,163	-914	-891	-1,168	-1,257	-1,428	-50	-89
꿀 및 로열젤리	-103	-116	-148	-204	-286	-311	-378	-462	-507	-615	-929	-2,051
낙농품	-64	-79	-56	-106	-208	-199	-270	-379	-284	-192	-513	-1,113

주: 농산물과 축산물은 MTI 2단위별 산업 분류를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2. 한·미 무역특화지수(TSI) 분석²⁴⁾

□ 산업 및 품목별 무역경쟁력 비교를 위해 ‘산업내 무역지수(G-L)’가 변형된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

- 무역특화지수(TSI)는 양자 간 교역에서 품목별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특정 품목의 순수출액을 양국 간 총교역액으로 나누어 산출
 - 무역특화지수가 1이면 완전 수출특화, -1이면 완전 수입특화 품목이고, 0이면 수출입 규모가 동일한 것을 의미

24) 무역특화지수(TSI) 분석은 한·미 간 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국제표준인 SITC 코드를 이용했으며, 각 표안의 값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이하 모든 표 동일).

〈그림 3〉 무역특화지수(TSI) 산출 공식

$$TSI_{ij}^k = \frac{X_{ij}^k - M_{ij}^k}{X_{ij}^k + M_{ij}^k}$$

TSI_{ij}^k : i 국가 k 품목에 대한 j 국가 무역특화지수

X_{ij}^k : i 국가 k 품목의 j 국가로의 수출액

M_{ij}^k : i 국가 k 품목의 j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 이진면·김바우(2017)²⁵⁾의 연구에서 HS코드 6단위 기준 2016년 교역통계를 이용한 무역특화지수 분석을 통해 한·미 간 교역구조의 상보성을 제시

- HS 6단위 기준 2016년 미국의 對한국 30대 수입품목 규모는 428억 달러이며 이는 對한국 총 수입(699억 달러)의 61.2%에 해당
- 30개 중 26개 품목의 對세계 수입이 수출보다 커 수입에 특화, 16개 품목은 수출이 수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반대로 한국의 30대 對미국 수입품 중 25개 품목이 對세계 수입에 특화되어 있어 양국 간 교역의 보완성을 입증

〈그림 4〉 한·미 SITC 3단위 산업별 무역특화지수(TSI) 분포 변화



주 1) SITC 3단위 기준으로 총 270개 산업의 대외경쟁력지수를 나타내었으며, 對세계(RoW) TSI는 전 세계 교역액에서 미국(한국)과의 교역액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의 교역액을 기초로 산출한 값을 나타냄.

2) 각 그림의 오른쪽 위에서부터 제1사분면은 우리나라가 對세계와 대미국 모두 수출에 특화, 제2사분면은 對세계는 수입특화, 對미국은 수출특화, 제3사분면은 對세계와 對미국 모두 수입특화, 제4사분면은 對세계 수출특화, 對미국 수입특화를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25) 이진면·김바우, 2017,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i-KIET 산업경제이슈』 제21호, 산업연구원.

□ 한·미 FTA 발효 이후 상품수지 변화의 방향은 무역특화지수 그룹별로 다르지만 양국 모두 對세계(RoW) 경쟁력 변화 추세가 한·미 간 상품교역에도 반영

-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산업은 2011년 96개에서 2016년 115개로 증가했고, 그 산업군의 상품수지 흑자액은 403억 달러(96개)에서 467억 달러(115개)로 증가
 - 미국보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같은 기간 167개에서 151개로 감소했고, 그 산업군의 상품수지 적자액은 287억 달러(167개)에서 235억 달러(151개)로 개선
 - 미국을 제외한 對세계(RoW) 경쟁력이 높은 산업은 93개에서 101개로 증가했으나, 그 산업군의 상품수지 흑자액은 오히려 2,705억 달러(93개)에서 2,102억 달러(101개)로 감소
-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높은 산업은 157개에서 140개로 감소했고, 그 산업군의 상품수지 흑자액은 238억 달러(157개)에서 214억 달러(140개)로 감소
 - 한국보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110개에서 126개로 증가했고, 그 산업군의 상품수지 적자액은 405억 달러(110개)에서 551억 달러(126개)로 악화
 - 우리나라를 제외한 對세계(RoW) 경쟁력이 높은 산업은 99개에서 78개로 감소했고, 그 산업군의 상품수지 흑자액은 3,138억 달러(99개)에서 2,820억 달러(78개)로 감소

□ 對세계(RoW) 및 對미국 무역특화지수가 모두 보험세를 보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對세계(RoW) 무역특화지수는 악화된 반면 對한국 무역특화지수는 개선

-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산업군의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0.74에서 2016년 0.7로 하락했으나 경쟁력이 낮은 산업군은 같은 기간 -0.7에서 -0.67로 소폭 상승
- 우리나라가 세계(RoW)보다 경쟁력이 높은 산업군은 각각 0.47에서 0.40으로 하락했고, 경쟁력이 낮은 산업군은 -0.62에서 -0.54로 개선됨.

〈표 8〉 한·미의 대외 경쟁력 분포별 TSI 및 상품수지 변화

구 분		산업 빈도				TSI				상품수지(억 달러)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11년	'16년	'11년	'16년	'11년	'16년	'11년	'16년	'11년	'16년	'11년	'16년
수출특화		57	69	80	62	0.76	0.73	0.77	0.74	378	436	173	151
수입특화		131	119	91	110	-0.68	-0.66	-0.72	-0.68	-224	-185	-388	-501
세계보다 낮고 상대보다 높음		39	46	77	78	0.49	0.45	0.35	0.59	25	31	65	63
세계보다 높고 상대보다 낮음		36	32	19	16	-0.48	-0.34	-0.38	-0.55	-63	-50	-17	-50
상대국 대비	경쟁력 낮은 산업	167	151	110	126	-0.62	-0.55	-0.70	-0.67	-287	-235	-405	-551
	경쟁력 높은 산업	96	115	157	140	0.74	0.70	0.58	0.69	403	467	238	214
세계 대비	경쟁력 낮은 산업	170	165	168	188	-0.62	-0.54	-0.47	-0.49	-2,513	-1,440	-12,271	-12,552
	경쟁력 높은 산업	93	101	99	78	0.47	0.40	0.38	0.36	2,705	2,102	3,138	2,820

주: 對세계(RoW) TSI는 전 세계 교역액에서 미국(한국)과의 교역액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의 교역액을 기초로 산출한 값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 미국은 對세계(RoW) 경쟁력이 낮은 산업군과 높은 산업군 모두 무역특화지수가 악화된 반면, 對한국 무역특화지수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對세계(RoW) 경쟁력이 높은 산업군의 무역특화지수는 0.38에서 0.36으로, 경쟁력이 낮은 산업군은 -0.47에서 -0.49로 소폭 악화된 경향을 보임.
- 對한국 경쟁력이 높은 산업군의 무역특화지수는 0.58에서 0.69로, 경쟁력이 낮은 산업군은 -0.7에서 -0.67로 개선됨.

□ (SITC 1단위)식품 및 산동물, 비식용원재료와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의 무역경쟁력은 미국이 높고, 재료별 제조제품과 기계 및 운수장비의 무역경쟁력은 우리나라가 높아

- 2016년 우리나라의 식품 및 산동물(-0.81), 비식용원재료(-0.78)와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0.94)는 對미국 수입특화가 강하고 對세계(RoW) 경쟁력도 낮음.
- 이 세 가지 산업의 對미국 TSI는 FTA 발효 전인 2011년보다 증가했고, 對세계(RoW) 경쟁력도 동시에 증가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표 9〉 우리나라의 산업별(SITC 1단위) 무역특화지수(TSI) 변화

구 분	우리나라의 對미국 무역경쟁력			우리나라의 對세계(RoW) 무역경쟁력		
	2011년(A)	2016년(B)	TSI 변화분(B-A)	2011년(C)	2016년(D)	TSI 변화분(D-C)
식품 및 산동물	-0.88	-0.81	0.06	-0.56	-0.58	-0.02
음료 및 담배	0.19	0.34	0.16	0.17	0.19	0.02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0.81	-0.73	0.09	-0.66	-0.63	0.03
광물성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0.00	0.11	0.11	-0.54	-0.52	0.02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0.97	-0.94	0.03	-0.88	-0.86	0.03
화학물 및 관련 제품	-0.36	-0.35	0.01	0.16	0.22	0.06
재료별 제조제품	0.45	0.50	0.05	0.06	0.12	0.06
기계 및 운수장비	0.40	0.45	0.05	0.38	0.32	-0.06
기타 제조제품	-0.29	-0.16	0.12	0.16	-0.02	-0.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0.24	0.28	0.04	0.35	0.21	-0.13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우리나라의 재료별 제조제품(0.5)과 기계 및 운수장비(0.45)는 수출에 특화되어 있고 對세계(RoW)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임.
- 재료별 제조제품의 對미국 TSI가 2011년에 비해 상승함과 동시에 對세계(RoW) TSI도 상승해 전 세계 경쟁력 증가가 對미국 교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계 및 운수장비의 TSI는 같은 기간 미국에 대해서는 소폭 상승했지만 세계적으로는 소폭 하락하여 미국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16년 기준 미국의 수출에 특화된 산업은 對한국 경쟁력이 對세계(RoW) 경쟁력보다 월등히 높은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와 대조적임.

- 식품 및 산동물의 對세계(RoW) TSI는 -0.07로 중립적이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0.81의 매우 강한 수출특화를 보이며, 비식용 원재료와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도 對세계(RoW)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특화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남.

〈표 10〉 미국의 산업별(SITC 1단위) 무역특화지수(TSI) 변화

구 분	미국의 對한국 무역경쟁력			미국의 對세계(RoW) 무역경쟁력		
	2011년(A)	2016년(B)	TSI 변화(B-A)	2011년(C)	2016년(D)	TSI 변화(D-C)
식품 및 산동물	0.87	0.81	-0.06	0.03	-0.07	-0.11
음료 및 담배	-0.24	-0.36	-0.12	-0.54	-0.58	-0.04
비식용원재료(연료 제외)	0.79	0.67	-0.12	0.37	0.36	-0.00
광물성연료, 운할유 및 관련 물질	0.05	-0.11	-0.16	-0.54	-0.25	0.29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0.95	0.94	-0.01	-0.22	-0.42	-0.20
화학물 및 관련 제품	0.38	0.02	-0.36	-0.05	-0.09	-0.04
재료별 제조제품	-0.57	-0.62	-0.05	-0.35	-0.40	-0.05
기계 및 운수장비	-0.45	-0.48	-0.03	-0.25	-0.32	-0.06
기타 제조제품	0.15	-0.07	-0.22	-0.48	-0.53	-0.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0.11	-0.33	-0.22	-0.04	-0.29	-0.25

자료: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 주요 식품 및 산동물의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월등히 낮아 수입에 완전 특화

- 우리나라는 쇠고기, 옥수수, 동물사료, 기타 고기, 밀과 치즈·커드가 수입에 완전 특화되어 있으며, 이 품목들은 FTA 발효 전부터 對미국 경쟁력이 낮은 품목임.
- 과실 및 견과의 경우 2016년 對세계(RoW) TSI는 -0.73인 데 비해 對미국 TSI는 -0.91로 미국에 대해 수입특화가 더 강하게 나타나며, 동물사료, 기타 고기, 커피 및 커피대용품 등의 TSI도 세계(RoW)보다 미국에 대해 더 낮은 경향을 보임.
- 우유·크림 등과 채소는 對미국 TSI가 -0.33인 데 비해 對세계(RoW) TSI는 -0.6으로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대해 수입특화가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

〈표 11〉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 및 산동물 분야(SITC 3단위) 무역특화지수(TSI) 변화

구 분	우리나라의 對미국 무역경쟁력			우리나라의 對세계(RoW) 무역경쟁력		
	2011년(A)	2016년(B)	TSI 변화분(B-A)	2011년(C)	2016년(D)	TSI 변화분(D-C)
쇠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	-1.00	-1.00	0.00	-0.97	-0.96	0.01
옥수수	-1.00	-1.00	0.00	-1.00	-1.00	-0.00
과실 및 견과(기름용 견과 제외, 신선 또는 건조한 것)	-0.88	-0.91	-0.02	-0.69	-0.73	-0.04
동물사료	-1.00	-1.00	-0.00	-0.84	-0.87	-0.03
기타 고기 및 식용 설육(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	-1.00	-1.00	0.00	-0.96	-0.96	0.00
밀(스펠트 포함)과 메슬린(정미하지 않은 것)	-1.00	-1.00	0.00	-1.00	-1.00	-0.00
물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	-0.42	-0.40	0.02	-0.26	-0.39	-0.13
곡식가공품 및 곡분	-0.06	0.03	0.09	-0.20	-0.25	-0.05
치즈와 커드	-1.00	-1.00	0.00	-0.99	-0.98	0.01
쌀(벼 포함)	-1.00	-0.97	0.02	-0.96	-0.96	0.00
커피 및 커피대용품	-0.63	-0.75	-0.12	-0.51	-0.52	-0.02
우유, 크림 및 우유생산품(버터 및 치즈 제외)	-0.56	-0.29	0.27	-0.81	-0.48	0.33
채소(신선, 냉장, 냉동 또는 단순히 저장한 것)	-0.34	-0.33	0.01	-0.66	-0.60	0.0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16년 미국 주요 식품 및 산동물의 對세계(RoW) 경쟁력은 2011년에 비해 하락한 경향을 보여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쇠고기의 경우 對세계(RoW) 무역특화지수가 2011년에 0.14로 수출에 특화를 보였으나 2016년에는 -0.08로 수입에 특화된 형태로 역전됨.²⁶⁾

〈표 12〉 미국의 주요 식품 및 산동물 분야(SITC 3단위) 무역특화지수(TSI) 변화

구 분	미국의 對한국 무역경쟁력			미국의 對세계(RoW) 무역경쟁력		
	2011년(A)	2016년(B)	TSI 변화분(B-A)	2011년(C)	2016년(D)	TSI 변화분(D-C)
쇠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	1.00	1.00	0.00	0.14	-0.08	-0.23
옥수수	1.00	1.00	-0.00	0.93	0.89	-0.04
과실 및 견과(기름용 견과 제외, 신선 또는 건조한 것)	0.88	0.90	0.02	-0.03	-0.14	-0.12
동물사료	1.00	1.00	-0.00	0.62	0.57	-0.04
기타 고기 및 식용 설육(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	1.00	1.00	-0.00	0.64	0.52	-0.12
밀(스펠트포함)과 메슬린(정미하지 않은 것)	1.00	1.00	-0.00	0.88	0.82	-0.06
물고기(신선(산 것 포함), 냉장 또는 냉동한 것)	0.72	0.69	-0.04	-0.36	-0.51	-0.16
곡식가공품 및 곡분	-0.17	-0.10	0.06	-0.24	-0.31	-0.07
치즈와 커드	1.00	1.00	-0.00	-0.16	-0.12	0.03
쌀(벼포함)	0.99	0.98	-0.02	0.48	0.41	-0.07
커피 및 커피대용품	0.71	0.74	0.03	-0.80	-0.76	0.04
우유, 크림 및 우유생산물(버터 및 치즈 제외)	0.76	0.52	-0.24	0.70	0.63	-0.07
채소(신선, 냉장, 냉동 또는 단순히 저장한 것)	0.52	0.29	-0.24	-0.42	-0.45	-0.04

자료: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 주요 기계 및 운수장비 산업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월등히 높아 수출에 특화

- 2016년 우리나라의 승용자동차 및 기타 차량(0.81), 트랙터와 차량 부분품 및 부속품(0.89), 사무용·자동차료처리 기계 전용 부분품(0.92), 토목공사용 장치(0.76), 섬유 및 가죽용 기계류(0.97)의 경쟁력은 세계 및 미국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산업용 기타 기계기구, 항공기 및 관련 장비, 우주선은 對세계(RoW) 경쟁력이 낮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산 수입특화 수준이 對세계(RoW)보다 더 높게 나타남.

26) 미국의 쇠고기 주요 수입국(2016년 수입량 기준)은 호주(26.2%), 캐나다(25.5%), 뉴질랜드(20.8%)인 데 반해, 수출국(2016년 수출량 기준)은 일본(25.0%), 한국(20.5%), 멕시코(15.3%)임. 미국의 對세계(RoW) 무역특화지수 산출 시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2014년부터 수입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단,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할 경우, 2007~08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 모두 수출에 특화되어 있음.

〈표 13〉 우리나라의 주요 기계 및 운수장비 분야(SITC 3단위) 무역경쟁력 변화

구 분	우리나라의 對미국 무역경쟁력			우리나라의 對세계(RoW) 무역경쟁력		
	2011년(A)	2016년(B)	TSI 변화(B-A)	2011년(C)	2016년(D)	TSI 변화(D-C)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0.92	0.81	-0.12	0.82	0.48	-0.33
트랙터, 승용·화물·기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0.85	0.89	0.04	0.62	0.64	0.02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관	-0.51	-0.32	0.19	0.25	0.30	0.04
특수산업용 기타 기계기구 및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0.52	-0.51	0.01	-0.25	-0.05	0.20
항공기 및 관련 장비 우주선	-0.57	-0.51	0.06	-0.69	-0.12	0.57
사무용·자동자료처리 기계전용 부분품	0.85	0.92	0.06	0.25	0.02	-0.22
자동자료처리기계	0.42	0.58	0.16	-0.26	-0.21	0.04
기관 및 모터, 비전기식·달리 명시되지 않은 기관	-0.56	-0.74	-0.17	-0.18	-0.17	0.01
가열 및 냉각장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0.05	0.47	0.42	0.38	0.41	0.03
토목공사용 장치	0.78	0.76	-0.02	0.80	0.70	-0.10
섬유 및 가죽용 기계류 및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0.98	0.97	-0.01	0.47	0.53	0.0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미국 주요 기계 및 운수장비의 對세계(RoW) 무역특화지수는 대부분 음의 값으로 수입에 특화되어 있으며, 2011년에 비해 對세계(RoW) 경쟁력이 약화됨.
- 토목공사용 장치와 섬유 및 가죽용 기계류 등의 경쟁력이 각각 0.4와 0.27만큼 약화됨.

〈표 14〉 미국의 주요 기계 및 운수장비 분야(SITC 3단위) 무역경쟁력 변화

구 분	미국의 對한국 무역경쟁력			미국의 對세계(RoW) 무역경쟁력		
	2011년(A)	2016년(B)	TSI 변화(B-A)	2011년(C)	2016년(D)	TSI 변화(D-C)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0.93	-0.85	0.08	-0.46	-0.53	-0.07
트랙터, 승용·화물·기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0.73	-0.82	-0.09	-0.13	-0.21	-0.08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관	0.00	-0.11	-0.11	-0.15	-0.24	-0.10
특수산업용 기타 기계기구 및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0.58	0.69	0.11	-0.04	0.00	0.04
항공기 및 관련 장비 우주선	0.32	0.48	0.16	0.58	0.59	0.01
사무용·자동자료처리 기계전용 부분품	-0.95	-0.93	0.01	-0.48	-0.52	-0.03
자동자료처리기계	-0.62	0.06	0.68	-0.72	-0.74	-0.02
기관 및 모터, 비전기식·달리 명시되지 않은 기관	-0.03	0.16	0.19	-0.30	-0.41	-0.11
가열 및 냉각장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0.13	-0.53	-0.39	-0.09	-0.28	-0.20
토목공사용 장치	-0.19	-0.60	-0.41	0.30	-0.11	-0.40
섬유 및 가죽용 기계류 및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0.97	-0.97	0.01	-0.30	-0.57	-0.27

자료: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3.3. 한·미 농식품 분야 무역특화지수(TSI) 분석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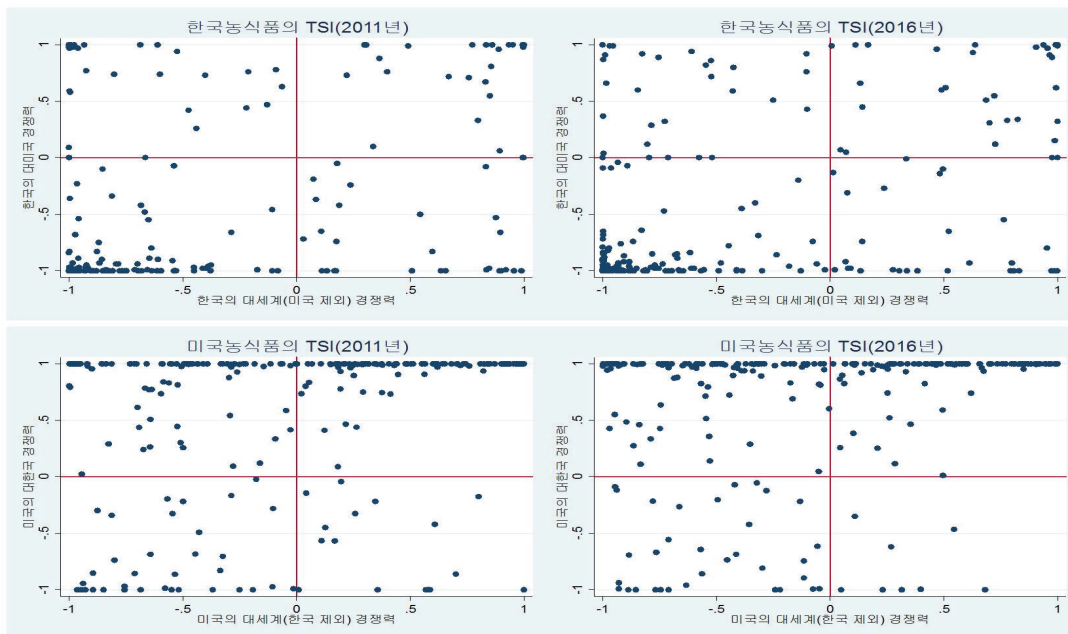
□ 농식품 분야 상품교역은 비대칭적 교역구조로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수입특화 구조

-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2011년 122개에서 2016년 119개로 감소했으나,

27) 농식품 분야 무역특화지수(TSI) 분석은 SITC 1단위 분류 기준 가운데 '식품 및 산동물'과 '음료 및 담배'를 기준으로 SITC 5단위 372개 품목을 분석함.

- 그 품목들의 상품수지 흑자액은 2억 달러(122개)에서 4억 달러(119개)로 증가
- 미국보다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같은 기간 217개에서 224개로 증가했고, 그 품목들의 상품수지 적자액은 58억 달러(217개)에서 54억 달러(224개)로 개선
- 미국을 제외한 對세계(RoW)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121개에서 122개로 증가했고, 그 품목들의 상품수지 흑자액은 19억 달러(121개)에서 24억 달러(122개)로 증가
-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320개에서 331개로 증가했으나, 그 품목들의 상품수지 흑자액은 55억 달러(320개)에서 51억 달러(331개)로 감소
- 한국보다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52개에서 41개로 감소했고, 그 품목들의 상품수지 적자액은 2억 달러(52개)에서 4억 달러(41개)로 소폭 증가
- 우리나라를 제외한 對세계(RoW)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212개에서 195개로 감소했고, 그 품목들의 상품수지 흑자액은 600억 달러(212개)에서 520억 달러(195개)로 감소

〈그림 5〉 우리나라와 미국의 농식품 품목별(SITC 5단위) 무역특화지수 분포(2016년)



주 1) SITC 1단위 가운데 제0분류(식품 및 산동물)와 제1분류(음료 및 담배)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해당 분야 SITC 코드는 372개임.
 2) 對세계(RoW) TSI는 전 세계 교역액에서 미국(한국)과의 교역액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의 교역액으로 산출한 값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 우리나라의 농식품 분야 무역특화지수는 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태

-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품목군의 2016년 기준 무역특화지수는 0.61로 미국의 0.97보다 낮고, 경쟁력이 낮은 품목군도 -0.94로 미국의 -0.66보다 매우 낮음.
-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품목군의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0.68에서 2016년 0.61로 하락했으나, 경쟁력이 낮은 품목군은 -0.96에서 -0.94로 소폭 상승

〈표 15〉 농식품 품목(SITC 5단위)의 무역경쟁력 분포별 TSI 및 상품수지 변화

구 분		품목 빈도				TSI				상품수지(억 달러)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11년	'16년	'11년	'16년	'11년	'16년	'11년	'16년	'11년	'16년	'11년	'16년
수출특화		92	93	196	187	0.70	0.63	0.98	0.97	1	3	48	42
수입특화		188	195	36	33	-0.99	-0.99	-0.57	-0.61	-54	-45	-2	-3
세계보다 낮고 상대보다 높음		30	26	124	144	0.62	0.57	0.94	0.95	1	1	7	9
세계보다 높고 상대보다 낮음		29	29	16	8	-0.66	-0.76	-0.67	-0.79	-4	-8	-1	-2
상대국 대비	경쟁력 낮은 산업	217	224	52	41	-0.96	-0.94	-0.60	-0.66	-58	-54	-2	-4
	경쟁력 높은 산업	122	119	320	331	0.68	0.61	0.98	0.97	2	4	55	51
세계 대비	경쟁력 낮은 산업	218	221	160	177	-0.88	-0.86	-0.61	-0.62	-107	-113	-550	-684
	경쟁력 높은 산업	121	122	212	195	0.47	0.50	0.66	0.58	19	24	600	520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무역특화지수가 절대적으로 높지만 對세계와 對한국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對세계 경쟁력이 높은 산업군의 무역특화지수는 0.66에서 0.58로, 경쟁력이 낮은 산업군은 -0.61에서 -0.62로 소폭 악화됨.
- 對한국 경쟁력이 높은 산업군의 무역특화지수는 0.98에서 0.97로, 경쟁력이 낮은 산업군은 -0.6에서 -0.66으로 악화됨.

□ 곡물 관련 품목은 교역액 감소로 對미국 상품수지 적자가 개선된 반면 축산(낙농 포함), 과일과 견과류의 상품수지 적자는 FTA 발효 전보다 악화

○ (곡물)사료용 옥수수, 밀과 현미 등의 對미국 무역특화지수는 FTA 발효 전후 모두 -1(對세계 무역특화지수도 -1)로 변화가 없으며, 對미국 총교역액 감소와 함께 對미국 상품수지 적자는 소폭 개선

- 사료용 옥수수, 밀과 현미의 對미국 총교역액은 각각 11억 달러, 2억 달러와 0.4억 달러 감소했으며, 상품수지 적자는 동일한 금액만큼 개선됨.

○ (축산물)쇠고기의 對미국 상품수지 적자는 지육의 경우 1.5억 달러, 정육은 2억 달러 증가했으나, 돼지고기는 미국의 對세계(RoW) 경쟁력 약화로 0.8억 달러 개선

- 미국산 냉장·냉동 돼지고기의 對세계(RoW)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각각 0.52와 0.77에서 2016년 각각 0.47과 0.58로 하락
- 우리나라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對미국 무역특화지수는 모두 -1로 수입에 완전 특화되어 있으며, 쇠고기 지육은 對세계(RoW) 무역특화지수가 -0.88에서 -0.92로 악화된 반면 쇠고기 정육은 -0.99에서 -0.97로 소폭 완화
- 낙농품에서 치즈(신선)와 탈지분의 상품수지 적자도 각각 0.1억 달러와 0.08억 달러 증가했으며, 무역특화지수도 -1로 변화가 없음.

- (과일)오렌지, 기타 핵과류, 레몬, 포도와 자몽의 對미국 상품수지 적자는 각각 0.5억 달러, 0.6억 달러, 0.2억 달러, 0.08억 달러와 0.06억 달러 악화되었으며, 對미국 총교역액은 상품수지 적자 증가분만큼 증가함.
- 배의 경우 우리나라가 對미국과 對세계(RoW) 모두 수출에 특화되어 있으며, 對미국 상품수지 흑자가 0.06억 달러 증가
- (견과류)아몬드와 호두의 對미국 상품수지 적자는 각각 0.9억 달러와 0.03억 달러 악화됨.
- 아몬드의 對미국 총교역액은 2011년 0.85억 달러에서 2016년 1.75억 달러로 106.3%의 큰 폭으로 증가

〈표 16〉 우리나라의 농식품 분야 對미국 상품수지와 무역특화지수 변화

구 분	對미국 총교역액 (억 달러)		對미국 상품수지 (억 달러)		對미국 무역특화지수		對세계(RoW) 무역특화지수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사료용 옥수수	19.34	8.29	-19.34	-8.29	-1.00	-1.00	-1.00	-1.00
기타 조제식료품	4.13	7.67	-2.98	-5.70	-0.72	-0.74	0.03	0.14
쇠고기(도체/이분도체)	2.59	4.06	-2.58	-4.06	-1.00	-1.00	-0.88	-0.92
쇠고기(뼈 없는 것)	3.31	5.34	-3.31	-5.33	-1.00	-1.00	-0.99	-0.97
돼지고기(냉동)	4.09	3.33	-4.09	-3.33	-1.00	-1.00	-1.00	-1.00
밀	5.06	2.91	-5.06	-2.91	-1.00	-1.00	-1.00	-1.00
사료용 뿌리채소류	2.30	2.31	-2.30	-2.31	-1.00	-1.00	-1.00	-1.00
오렌지	1.62	2.10	-1.62	-2.10	-1.00	-1.00	-1.00	-0.99
동물사료(양조 또는 증류박)	1.31	1.85	-1.31	-1.85	-1.00	-1.00	-1.00	-1.00
아몬드(미탈각)	0.85	1.75	-0.85	-1.74	-1.00	-0.99	-0.08	0.02
치즈(신선)	1.28	1.38	-1.28	-1.38	-1.00	-1.00	-1.00	-0.99
기타 핵과류(신선)	0.45	1.10	-0.45	-1.10	-1.00	-1.00	-0.88	-0.87
감자(조제·저장처리)	0.63	1.08	-0.63	-1.08	-1.00	-1.00	-1.00	-1.00
빵(기타)	0.75	1.05	-0.15	0.05	-0.19	0.05	0.08	0.07
필터 담배	0.29	1.04	0.29	1.04	1.00	1.00	0.86	0.94
물/기타 비알코올 음료	0.56	0.93	0.18	0.51	0.33	0.55	0.80	0.72
호두(미탈각)	0.82	0.85	-0.81	-0.84	-0.99	-0.99	0.84	-0.93
동물사료(기타 사료 조제품)	0.32	0.71	-0.30	-0.70	-0.95	-0.98	-0.37	-0.60
커피 및 커피대용품(카페인 포함)	0.26	0.61	-0.26	-0.60	-1.00	-0.99	-0.97	-0.94
혼합조미료	0.37	0.57	0.17	0.24	0.47	0.43	-0.13	-0.10
현미	0.91	0.57	-0.91	-0.56	-1.00	-0.99	-1.00	-1.00
파스타(숙을 채운 것)	0.34	0.54	0.33	0.53	0.96	0.98	0.89	0.91
혀(소의 것/냉동)	0.49	0.50	-0.49	-0.50	-1.00	-1.00	-1.00	-0.99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0.52	0.48	-0.51	-0.47	-0.99	-0.98	-0.66	-0.85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	0.27	0.42	-0.27	-0.42	-0.99	-0.99	-0.71	-0.81
소시지	0.22	0.33	-0.22	-0.33	-0.98	-1.00	-0.41	0.13
레몬(신선/건조)	0.09	0.31	-0.09	-0.31	-1.00	-1.00	-1.00	-1.00

(계속)

구 분	對미국 총교역액 (억 달러)		對미국 상품수지 (억 달러)		對미국 무역특화지수		對세계(RoW) 무역특화지수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정미(쇄미 제외)	0.34	0.31	-0.34	-0.29	-0.99	-0.94	-0.84	-0.74
쌀가루의 것	0.23	0.30	-0.12	-0.09	-0.50	-0.31	0.54	0.08
마아가린 및 쇼트닝(기타)	0.30	0.30	-0.30	-0.29	-0.98	-0.98	-0.40	-0.77
배(신선)	0.24	0.29	0.24	0.29	1.00	1.00	1.00	1.00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황색종)	0.11	0.28	-0.11	-0.28	-1.00	-1.00	-0.83	-0.92
쇠고기(뼈 있는 것)	0.09	0.27	-0.09	-0.27	-1.00	-1.00	-1.00	-0.96
저장과실과 과실조제품(기타)	0.15	0.26	-0.12	-0.22	-0.80	-0.85	-0.64	-0.67
설탕 과자(기타)	0.13	0.25	-0.10	-0.22	-0.74	-0.86	0.18	-0.24
포도(신선)	0.15	0.24	-0.14	-0.22	-0.93	-0.93	-0.98	-0.93
붉은 포도주	0.12	0.21	-0.12	-0.21	-1.00	-0.99	-0.96	-1.00
커피의 추출물(엑스·에센스 등)	0.12	0.20	0.01	-0.02	0.10	-0.10	0.34	0.50
치즈(가공)	0.13	0.31	-0.13	-0.30	-1.00	-0.98	-0.99	-0.95
기타 견과류(조제·저장처리)	0.16	0.20	-0.15	-0.17	-0.95	-0.86	-0.92	-0.68
돼지고기(신선/냉장)	0.52	0.19	-0.52	-0.19	-1.00	-1.00	-1.00	-1.00
스위트콘	0.19	0.19	-0.19	-0.19	-1.00	-1.00	-1.00	-0.98
콘플레이크(cornflake)	0.15	0.18	-0.04	-0.05	-0.24	-0.27	0.24	0.24
스파게티, 마카로니	0.18	0.18	0.17	0.17	0.94	0.94	-0.52	-0.61
말(농가 사육용)	0.10	0.18	-0.10	-0.18	-1.00	-1.00	-0.93	-0.97
기타 쇠고기(신선/냉장)	0.04	0.18	-0.04	-0.18	-1.00	-1.00	-1.00	-1.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0.10	0.17	-0.09	-0.17	-0.90	-0.99	-0.86	-0.92
자몽(신선/건조)	0.11	0.16	-0.11	-0.16	-1.00	-1.00	-1.00	-1.00
맥아엑스,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0.10	0.16	0.03	0.08	0.26	0.51	-0.44	-0.25
기타 견과류	0.17	0.16	-0.17	-0.16	-0.99	-0.99	-0.98	-0.96
돼지고기(조제·저장)	0.05	0.16	-0.05	-0.16	-1.00	-1.00	-0.95	-0.49
과일쥬스(냉동)	0.17	0.16	-0.17	-0.16	-1.00	-1.00	-0.98	-0.99
기타 알코올성 증류 음료	0.10	0.15	0.07	0.09	0.72	0.60	0.67	0.49
유당과 유당시럽	0.13	0.15	-0.13	-0.15	-0.99	-1.00	-1.00	-0.99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0.17	0.15	-0.17	-0.14	-1.00	-0.98	-0.90	-0.75
맥주	0.08	0.14	-0.03	-0.06	-0.37	-0.40	0.09	-0.33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빙과류	0.14	0.13	-0.01	0.06	-0.05	0.45	0.18	0.14
돼지고기(기타)	0.32	0.13	-0.32	-0.13	-1.00	-1.00	-0.99	-0.97
기타 단일 과실 또는 채소 쥬스	0.13	0.12	-0.12	-0.11	-0.91	-0.92	-0.54	-0.88
탈지분유	0.03	0.12	-0.03	-0.12	-1.00	-1.00	-1.00	-0.98
기타 토마토(조제·가공처리)	0.10	0.12	-0.10	-0.12	-1.00	-1.00	-1.00	-1.00
기타 채소(조제·가공처리)	0.06	0.11	0.05	0.09	0.76	0.80	-0.21	-0.43
버섯과 송로	0.06	0.10	0.06	0.10	1.00	1.00	0.31	0.11
기타 과일(신선)	0.14	0.10	-0.14	-0.10	-1.00	-0.99	-0.75	-0.67
스위트 비스킷 및 와플과 웨이퍼	0.01	0.10	-0.01	-0.09	-0.83	-0.89	-0.88	-0.67
포도(건조)	0.09	0.10	-0.09	-0.10	-1.00	-1.00	-1.00	-0.87
돼지고기(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0.06	0.10	-0.06	-0.10	-1.00	-1.00	-1.00	-0.99

주: 주요 품목은 2016년 기준 對미국 총교역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들을 제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04 | 요약 및 시사점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FTA 재(개정)협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며, 현재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 시작에 합의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과 선거 유세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도 주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2017.7.12.)했으며, 제1차 협상(2017.8.22.)과 최근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개최된 제2차 협상(2017.10.4.)으로 FTA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

□ 국제수지로 볼 때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상대국 투자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많아

○ 우리나라의 對미국 평균 투자액(금융계정)은 FTA 발효 전 31억 달러 부채에서 FTA 발효 후 181억 자산으로 변했으며, 對미국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평균 162억 달러에서 335억 달러로 106.7% 증가

○ 우리나라 전체 경상수지 흑자에서 미국의 비중은 FTA 발효 전 평균 97.8%에서 FTA 발효 후 37.9%로 크게 감소했으며, 미국의 국제수지에서 對한국 경상수지 적자와 금융계정의 비중은 각각 5%와 10% 미만에 불과

○ 우리나라의 對미국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최근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수지에서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적자가 FTA 발효 전 평균 31억 달러에서 발효 후 53억 달러로 69.9% 증가

□ 농림수산업과 화학공업 산업은 對미국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기계, 전자전기와 철강금속 산업은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

○ 농림수산업의 對미국 상품수지 적자는 FTA 발효 전 평균 51억 달러에서 FTA 발효 이후 평균 58억 달러로 증가

○ 곡류와 사료의 對미국 상품수지 적자는 개선된 반면 서류, 과실류, 견과류, 가축 육류, 꿀 및 로열젤리와 낙농품 등의 상품수지 적자는 크게 확대

- 기계 산업의 상품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평균 56억 달러에서 발효 후 183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전자전기 산업은 같은 기간 94억 달러에서 86억 달러로 감소

□ 전체 상품교역은 자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수출하고, 경쟁력이 낮은 품목을 수입하는 서로 보완적인 형태이나 농식품 분야는 매우 비대칭적인 수입구조

- (SITC 1단위)식품 및 산동물, 비식용원재료와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의 경쟁력은 미국이 높고, 재료별 제조제품과 기계 및 운수장비의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높음.
- (SITC 5단위)농식품에서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품목(119개)의 상품수지는 4억 달러 흑자이고, 경쟁력이 낮은 품목(224개)의 상품수지는 5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곡물 관련 품목은 교역액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가 개선된 반면 축산(낙농 포함), 과일과 견과류의 對미국 상품수지 적자는 FTA 발효 전보다 악화됨.

□ 한·미 무역 불균형은 경상(상품)수지를 포함하는 거시적인 국제수지를 통해서 볼 때 균형 있는 판단이 가능함을 시사

- 한·미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이후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 및 감소추세를 보이고, 우리나라의 對미국 투자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임.
- 미국의 對한국 상품수지 적자가 증가한 산업은 미국의 對세계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경향을 나타냄.
- 미국에 완전 수입특화되어 있는 농식품 분야는 FTA 이행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우리나라의 對미국 상품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수립한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 품목이 증가한 결과 등을 초래

□ 한·미 간 상품 분야 무역 불균형 해소는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

-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에서 농업분야에 요구하는 주요 쟁점은 관세율 철폐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산 545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의 즉시철폐와 한국산 33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철폐기간을 5~10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짐(매일경제 2017. 10. 9).
- 농식품 분야는 우리나라가 매우 강한 수입특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즉시철폐는 기존 수입특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맺은 다른 FTA 체결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미국산 농축산물의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철폐기간 조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상품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목표가 협정관세율 철폐기간의 재조정보다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최근 선행연구에서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보호 무역조치로 해결될 수 없으며, 노동과 자본 등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는 국내 조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는 농식품 수입특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국내 농업부문 산업구조와 시장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방향 설정 필요

- 우리나라 농식품의 심화되고 있는 對세계 및 對미국 수입특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유망 품목 개발, 해외 시장 특성 조사·분석, 농식품 수출지원체계 강화, 해외 마케팅보드 구성 등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
- 국내적으로는 점차 변화하는 소비자 및 시장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고품질의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 및 유통구조의 재편, 연구 및 기술개발 강화, 품종개량, 신규 농업인력 육성 등의 노력이 필요함. 또한 정부와 농업계의 농업 및 농업정책에 대한 인식의 틀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